

한중Zine

# 최신 중국 동향

vol.163 2015.08.17

## 2015년 상반기 중국경제 주요 현황

작 성 | 인천발전연구원  
유다형 연구원 (yoodh@id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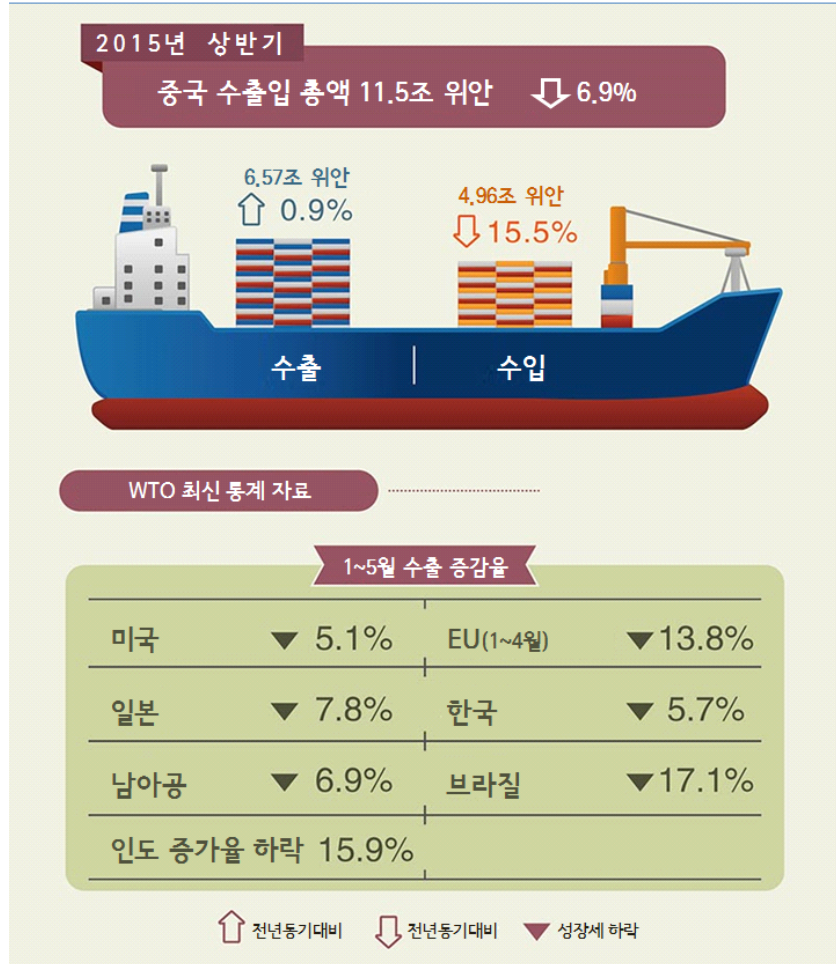
### 목 차

1. [경제] 2015년 상반기 중국 수출 0.9% 증가
2. [경제] 2015년 상반기 중국 FDI 4,205억 위안
3. [경제] 상반기 중국경제 지역, 산업 간 격차 커져
4. [사회]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10,931위안

## 경제 ▶ 2015년 상반기 중국 수출 0.9% 증가

- 중국상무부는 2015년 7월 21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수출상황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 전망함
- 해관총서는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이 11.5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.9% 하락했다고 밝힘
  - 수출은 6.57조 위안으로 0.9% 증가, 수입은 4.96조 위안으로 15.5% 하락함
- WTO 최신 통계발표에 따르면, 2015년 1~5월 미국(5.4%), EU(1~4월)(13.8%), 일본(7.8%), 한국(5.7%), 남아공(6.9%), 브라질(17.1%) 모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으며, 인도의 수출 증가폭은 동기대비 15.9% 하락함
- 상무부 대변인은 상반기 수출 증가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을 글로벌 경제침체와 외수시장 부진으로 꼽음
  - 또한 위안화 강세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함
- 반면 상반기 전자기기의 수출은 3% 증가했으며, 일대일로(一帶一路) 관련 국가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
  - 인도, 태국, 베트남 등 국가로의 수출이 10%이상 증가함
- 하반기 수출현황은 상반기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
  -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, 미국경제 호전 예상
  - 국무원은 최근 《안정적인 수출입 성장 지지를 위한 약간의견》 통과. 수출입환경 개선, 정책 강화, 개혁추진가속화, 새로운 동력 발굴 등 다방면으로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중국의 해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함

그림 1 | 2015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현황



출처: [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22/content\\_2900354.htm](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22/content_2900354.htm) 그림수정

02

경제 ▶ 2015년 상반기 중국 FDI 4,205억 위안

- 2015년 7월17일 중국상무부는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실질사용외자 이 4,205.2억 위안(약 684.1억 달러)으로 전년대비 8% 증가, 전년동기대비 2.2%의 증가했다고 발표

- 2015년 실질사용외자는 2014년보다 4% 증가한 1,250억 달러로 전망됨

그림 2 | 2015년 상반기 중국 FDI 현황



출처: [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17/content\\_2899211.htm](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17/content_2899211.htm) 그림수정

- 서비스업 유입 외자 증가율은 23.6%로 중국 전체 외자비중의 63.5%에 달함
- 특히 첨단제조업인 통신설비, 화학약품제조, 전자기기제조 등의 해외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
- 해외기업 인수합병 비중이 크게 증가함
  - 2015년 상반기 인수합병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기업은 641개로 21.2% 증가함
  - 전체 외자 가운데 인수합병의 비중은 4.8% 증가한 19.3%임

- 해외기업들의 현지화전략으로 상반기 R&D기관과 종합 기술서비스업 외자기업 795곳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25.7억 달러가 유입됨
  - 미국 카길(Cargill), 독일 루프트한자, 독일 벤츠, 미국 포드, 미국 아마존 등 세계 거대기업들의 추가투자과 회사설립이 이뤄지고 있음
- 대외개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확대로 해외기업의 제한조치를 대폭 감소해 나갈 예정임
  - 관련 분야와 업종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, 내륙으로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할 계획

03

경제 ▶ 상반기 중국경제 지역, 산업 간 격차 커져

- 2015년 7월 2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간, 산업 간 격차가 점차 뚜렷해졌다고 밝힘
- 상반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.3%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2.5%p 하락함
  - 4월, 5월, 6월의 성장률은 각각 5.9%, 6.1%, 6.8%로 소폭 상승세를 보임
  - 6월 41개 업종 대분류 중 39개의 업종이 성장세를 보임
  - 자동차 제조업, 비철금속제련, 압연가공업, 철로·항공·조선 제조업의 전월대비 성장률이 각각 3.5%p, 3.2%p, 2.9%p 증가함
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전국 공업비중의 50%이상이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졌으며, 중서부지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  - 상반기 동부지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.9% 증가했으며, 그 중 장쑤, 산둥, 광둥이 각각 8.3%, 7.4%, 7.4% 증가함
  - 중부지역의 성장률은 7.3%로 1분기 대비 0.4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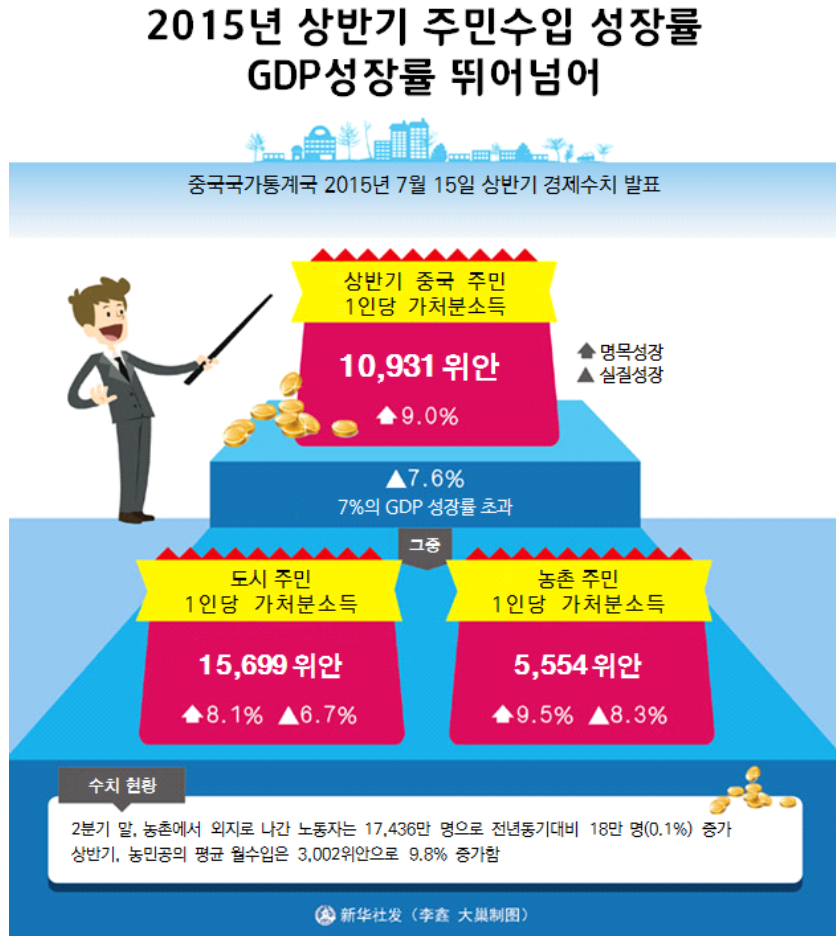
- 서부지역은 7.8% 성장을 보이며, 시짱, 충칭, 구이저우가 각각 15%, 11.1%, 10%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동북지역 증가율은 2.2% 하락함
- 상반기 중국의 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질이윤은 22,547억 위안으로 0.8% 하락함
  - 업종별 이윤은 제조업 6.5% 증가, 전력가스용수 공급업 15.2% 증가
  - 제조업 가운데 전자제조업의 이윤은 24.3%로 크게 늘어남
  - 방직업, 경공업의 이윤도 각각 10.1%, 9.7% 증가함
  - 의약산업의 이윤 11.1% 증가함
- 엔지니어링, 대형기계, 석유화학장비 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  - 반면 첨단기술을 탑재한 상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
  - 상반기 공업용 로봇은 1.3배 증가했으며, 기관차는 90.8%, 스마트 TV, 도시궤도차량, 태양열 건전지, 수질오염방지설비 등의 생산량이 25%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04

사회 ▶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10,931위안

-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년 7월 15일 상반기 경제수치를 발표
  - 2015년 상반기 중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,931위안으로 명목성장률 9%, 실질성장률 7.6% 증가함
  - 이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인 7%를 초과함
-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5,699위안으로 명목성장 8.1%, 실질성장 6.7% 증가
  -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,554위안으로 명목성장 9.5%, 실질성장 8.3% 증가함

그림 3 | 2015년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



출처: [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15/content\\_2897766.htm](http://www.gov.cn/xinwen/2015-07/15/content_2897766.htm) 그림수정

- 국가통계국은 상반기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힘
  - 도농간 주민소득격차는 2.83배로 전년 동기대비 0.04%p 감소함
- 2015년 2분기 말 기준, 농민공은 17,436만 명으로 18만 명 증가했으며,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3,002위안으로 9.8% 증가함

#### 출처

1. 商务部发言人：中国下半年出口形势将好于上半年，新华网，2015-07-21
2. 上半年我国吸收外资同比增长8%，新华网，2015-07-17
3. 上半年经济运行缓中趋稳 区域、行业分化明显，发展改革委网站 2015-07-29
4. 上半年居民收入增幅“跑赢”GDP增速，新华网，2015-07-15